**교제와 나눔**

**ㆍ교회당예배:** 매주일 15시 예배, 실시간으로 비대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ㆍ그리스도승천일:** 5월 26일(목) **ㆍ성령강림주일:** 6월 5일 주일

**ㆍ겨자씨 모임:** 5월 28일(토) 15시 Teestube

**ㆍ우크라이나 내지인들 돕기:** 다음 주일까지 생필품들을 모아 전달하겠습니다.

**ㆍ지난 주 방문:** 민종식

**ㆍ생일:** 이영숙, 김용묵, 이유니

**ㆍ담임목사:** 유럽예장총회 임원회 및 정책협의회(5월 23-25일, 마드리드)

**\*\* 함께 기도합시다 \*\***

1)은혜롭고 안전한 예배드리게 하소서.

2)모이기에 힘써, 배움과 교제의 기쁨 누리게 하소서.

3)코로나19를 넘어 온전한 일상을 회복해 가게 하소서.

4)스스로를 깊이 돌아보고, 삶 속에 변화를 만들어가게 하소서.

5)공의와 평화의 주여, 우크라이나를 침략자에게서 속히 구해 주소서.

**◆말씀일기 일정**

일/삼상10:1-16 월/삼상10:17-27 화/삼상11:1-15 수/삼상12:1-15

목/삼상12:16-25 금/삼상13:1-23 토/삼상14:1-23 일/삼상14:24-35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200독 대행진: 198독)**

**◈ 예배위원 안내 ◈**

|  |  |  |  |  |
| --- | --- | --- | --- | --- |
|  | **5월 22일** | **5월 29일** | **6월 5일** | **6월 12일** |
| **예배기도** | 우선화 | 백윤정 | 박성희 | 서연주 |
| **말씀일기** | 이선영 | 조준호 | 권순아 | 김평님 |
| **안내위원** |  예배부 |
| **헌금위원** | 박희영 | 김종권 이재완 |

**39-21호 2022년 5월 22일**



 **“서로 위로하라”**(살전4:18)

주일예배 15:00 Mutterhauskirche

유초등부 15:00 Teestube

청소년부 15:00 Teestube

청년부 성경공부 16시 Teestube

토요기도회: 07:00 각 가정

선교성경아카데미(MBA): 누구든 어디서나

**담임/ 손교훈 목사**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교육/ 김요한 목사** HP. 0176-5574 1290

**교육/** **이동훈 목사** HP. 01525-2367 629

**선교협력/ 이광열 목사** HP. 0157-7388 7498

1983년 5월8일 창립 **뒤셀도르프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주소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주 일 예 배**

인도: 손교훈 목사

|  |  |  |
| --- | --- | --- |
| ※입례송/Eingangslied …………. 왕이신 나의 하나님 ………………… ※예배부름/Eingangsgebet ………………………………...........………………………………………………............. | 다함께인도자 |  |
| ※찬송/Gemeindelied ……….......................….……. 1장 ……................................... | 다 함 께 |
|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 | 다함께 |
| 성시교독/Wechselwort …………………. 교독문 56번 ……………............... | 다함께 |
| 찬송/Gemeindelied …………………..…………… 31장 ……….………………..…… | 다함께 |
| 기도/Gebet …….................…………...................................................…………..............말씀일기/Bibeltagebuch ……………………………………………………………………...찬양/Chor …………………….................................. 봄 …………………………..…...… | 우선화 권사이선영 집사서민규 집사 |
|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 마태복음 5:1-12 …………………… | 인도자 |
| .설교/Predigt ..…...….......................... **주 안에서 행복하라** ……............… | 손교훈 목사 |
| 찬송/Gemeindelied .………………………….…… 434장 ………………………….…..봉헌/Kollekte……….......................................................................................................... | 다 함 께다 함 께 |
| 교제/Bekanntmachung………………………………………………………………................ | 다함께 |
| ※주기도송/Vaterunser…………………………………………………………………………… | 다함께 |
| ※축도/Segen ………………………….……………………………………………...................... | 손교훈 목사 |

**※ 표는 일어섭니다.**

**\*\*교회 구좌\*\***

Ev. Presbyterianische Kirchengemeinde e.V.

Bank: Stadtsparkasse Düsseldorf

IBAN: DE61 3005 0110 1008 4019 01

◀ **손교훈 목사의 말씀일기 - 삼상6장 ‘기쁨과 슬픔의 경계’** ▶

블레셋은 전쟁의 승리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갔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가는 곳마다 재앙을 일으키는 ‘애물단지’가 되었다. 결국 블레셋은 나름 종교의식을 통해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도로 돌려보낸다. 두 암소는 송아지들과 헤어져 울면서도 벧세메스로 똑바로 올라갔다.

밀을 베던 벧세메스 사람들이 블레셋과의 경계를 넘어 돌아온 궤를 보고 기뻐하였고,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14)렸다. 경계선까지 따라 왔던 블레셋 방백들은 이것을 보며 근심을 털고 돌아갔다. 하지만, 이들이 흘려놓고 간 근심이 벧세메스 사람들의 기쁨을 덮어버린 것일까? 벧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보다가 칠십 명이 죽는 슬픔을 맞는다. 그리고 언약궤를, 마치 블레셋 사람들처럼,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한다.

블레셋처럼 복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복이 저주가 되고, 벧세메스 사람처럼 불현듯 다가온 복을 신중하게 대하지 못하는 자는 스스로 그 복을 잃어버리고 만다. 벧세메스 사람들이 들판에서 처음 궤를 대했을 때의 기쁨은 얼마나 컸겠는가? 그 큰 기쁨이 호기심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아픔과 슬픔으로 바뀌고 말았다.

벧세메스 사람들이 결국 여호와의 궤를 기럇여아림 사람들에게 가져가게 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20). 얼핏 위대한 고백 같지만,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 앞에 서지 않는 것이 문제요, 함부로 서는 것이 문제이다. 모름지기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세로 말씀 앞에 서야 한다. 단지 호기심으로, 그저 연구 대상으로 말씀을 들여다 본다면, 언제 내게 슬픔이 다가 올지, 그렇게 복이 나를 떠나가게 될 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또 다시 확인한다. 하나님을 내 멋대로 이리저리 옮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옮겨 놓아야 한다. 기쁨이 슬픔 되지 않도록, 순전함과 순종으로.